

갓생챌린지

연진 : 24살, 여자. SNS 안에서 인플루언서로 주로 백화점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과시하여 금수저, 올드머니 등의 이미지메이킹으로 인기를 얻었다. 그러나 현실은

시놉시스

인플루언서 연진(24,여)은 sns상에서 인기가 떨어짐을 인지하고 다시 인기를 얻기 위해 명품을 사 sns상에서 과시하기 시작한다.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며 sns와 실제의 연진이 띄는 괴리를 외면하는 연진.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떨어져 가는 관심을 소비로 계속해서 채우지만 그럴수록 실제 자신은 사라진다. 이를 알게 된 연진은 마지막 손만 남겨둔 채 선택에 기로에 빠진다. 결국 좋아요 하나를 얻기 위해 피드를 업로드한 연진. 진짜 나를 잃어버린 채 그간 사온 물건들이 쓰레기로 변한 공허한 공간만이 남는다.

시나리오

S#1. 연진의 방, IN, N

불꺼진 방안 핸드폰을 보며 손톱을 깨물고 있는 연진. 핸드폰 화면 속 연진의 계정인 sns 피드의 좋아요 수가 저조하다.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릴 때마다 눈에 띄는 명품들. 필요없는 물건들을 핸드폰으로 손쉽게 결제하는 연진의 낮에 푸른 핸드폰 불빛이 가득 비춰진다.

S#2. 스튜디오, IN, D

모은 명품들을 가지고 작위적인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연진. 좋아요 수가 급등할수록 연진의 뒤에 DP된 가방, 구두, 악세사리들이 늘어난다. 사진을 찍는 척 계속 포징하는 연진과 무수한 셔터음들. 연진의 주변으로 수많은 태그들이 올라온다. (#명품 #플렉스 #기분전환 #갓생 등등.)

E. 좋아요 오르는 알림음

연진을 담아내고 있는 핸드폰, 전자기기의 개수가 똑같이 늘어난다. 전자기기들이 연진을 모두 가릴 정도가 되자 실제 연진은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다. 피드를 한 번만 더 게시하면 핸드폰을 쥐 손까지 사라질지도 모른다. 주저하는 연진.

연진

아... 이거 있어 보이는 거 맞겠지?

결국 피드를 올리는 연진. 그러자 손마저 사라지고 전자기기들 속에 연진의 모습만이 남아있다. 연진이 그간 사왔던 물건들이 하나둘 쓰레기로 변한 공간. sns 알림음들만 난무해진다.

END. 스튜디오, IN, D (그래픽 변화)

그 위로 부유하는 태그 #갓생이 #관심으로 또 다시 #7s에서 #과시. 새롭게 도착한 SNS 알림. '당신은 누구를 과시하고 있나요?'